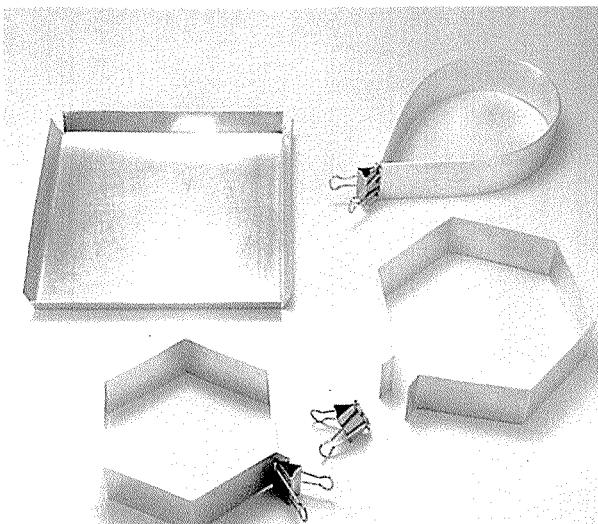


# 작업효율을 높여주는 제과도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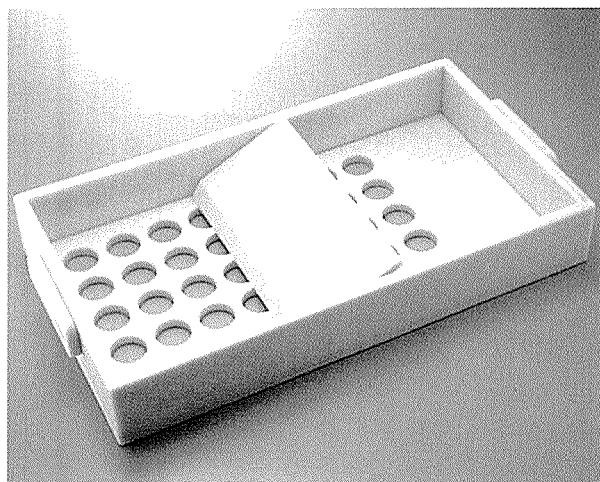
제과인이라면  
 누구나 제품을 만들 때  
 '이런 도구가 있으면 편리하겠다'고  
 생각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.  
 특히 손이 많이가는 제품이거나  
 작업이 번거로울 때  
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 
 공정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 
 나만의 도구를 만들 수 있다.  
 〈자료협조 : 일본 PCG誌〉

## 다용도 무스틀

무스제품을 손쉽게 틀에서 빼낼 수 있게 고안된 세로틀. 모양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 0.6mm의 알루미늄 재질은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리거나 자를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제품생산이 가능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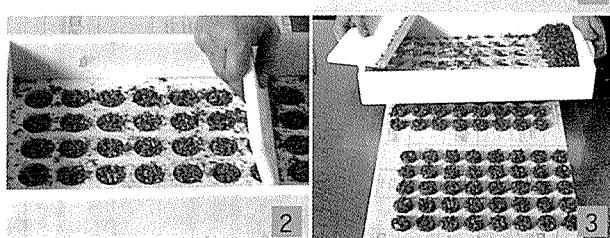
## 초컬릿 사브론



프랑스 과자점에서 인기있는 제품을 그대로 만들기 위해 일본에서 직접 제작한 소형 과자틀. 공정이 단축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.

### … 사용 방법 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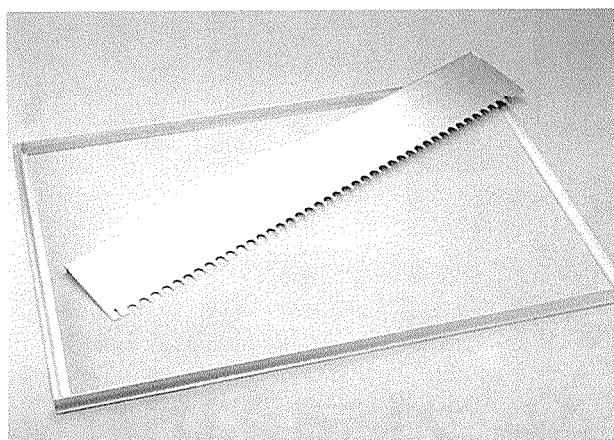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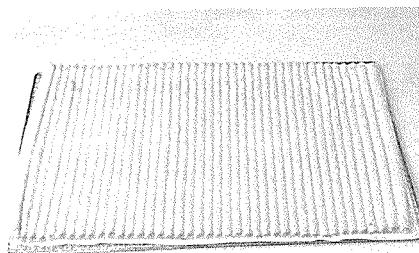
- 1 바닥에 오븐 페이퍼를 깐 후 틀을 올리고 반죽을 팬닝한다.
- 2 밀대로 반죽을 눌러주며 여분의 반죽은 옆쪽으로 보낸다.
- 3 양쪽 손잡이를 잡고 틀을 위로 들어 올린다.



## 비스퀴 아라 쿠이예르용 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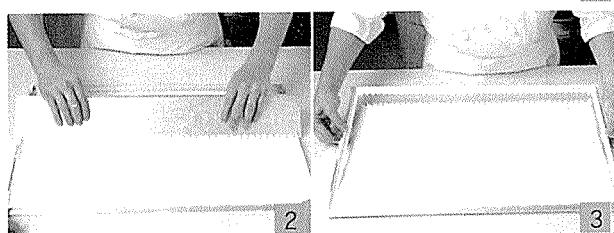
비스퀴 아라 쿠이예르의 공정과 시간을 단축해 주는 도구. 알루미늄판은 0.8cm 두께로 갈아 만든 제품으로 양쪽 끝 부분에 홈을 파 철판에 걸어 사용한다.

이 도구는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짤주머니를 사용할 때 손의 온기에 의해 반죽이 녹는 것을 막아줘 언제나 균일한 제품을 얻을 수 있다. 현재 일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도구이다.



### ... 사용 방법 ...

- 1 실리콘 페이퍼 등 오븐 시트에 사각 틀을 대고 반죽을 균일하게 팬닝한다.  
풀 높이의 1/3정도 팬닝한다.
- 2 양쪽 홈을 사각 틀에 걸고 3 회정도 아래 위로 굽어준다.
- 3 사각틀을 뺀 후 분당을 뿌려 굽는다.



## 프티 가토용 세르클틀



손이 많이 가는 소형 제품의 작업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도구. 각각 필요한 개수와 크기에 맞춰 제작하면 된다. 일정 간격으로 구멍 뚫린 2개의 연결 판과 완제품을 빼낼 때 사용하는 둥근 모양의 틀로 구성된다.

### ... 사용 방법 ...

- 1 각각의 구멍에 무스 테이프를 두르고 비스퀴를 깐다.
- 2 원하는 크림을 가득 충전한 후 냉동시킨다.
- 3 표면의 무스를 굽어 낸다.
- 4 분사기를 사용해 표면에 초콜릿을 뿌린다.
- 5 둥근 원형의 밑판을 제품의 밑부분에 맞춰 제품을 꺼낸다.

